

# 배우 엄혜란 “엄마 연기 또 해야죠, 더 색다른 엄마로요”

넷플릭스 ‘마스크걸’ 김경남 역 맡아 열연 뒤틀린 모성 갖고 복수 외치는 악당 엄마 “못 본 캐릭터 원했다...여성 캐릭터 확장” “전성기? 가장 행복한 시기인 건 맞아요”

“엄마 역할에서 벗어나고 싶냐고요? 아니요. 일부러 피할 생각은 없어요. 다 같은 엄마가 아니니까요.”

배우 엄혜란(47)은 “요즘 나오는 작품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엄마 캐릭터가 생긴 것 같아 너무 좋다”며 이렇게 말했다. 30대 이상 시청자에게 엄마 하면 떠오르는 배우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김혜자·고두심·김혜숙·윤여정 정도를 꼽을 것이다. 10~20대 시청자에게 같은 물음을 던지면 많은 이들이 엄혜란을 꼽을 것 같다. ‘더 글로리’의 강현남과 ‘마스크걸’의 김경자는 최근 영화·드라마를 통틀어 가장 인상적인 엄마 캐릭터였다. 엄혜란은 두 인물을 모두 연기했다.

“제가 엄마 나이니까, 엄마 역할이 들어오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전 연극할 때부터 엄마 역할을 많이 하긴 했어요.(웃음) ‘더 글로리’나 ‘마스크걸’의 엄마와는 또 다른 엄마를 연기하고 싶어요. 꼭 그런 작품이 제게 왔으면 해요.”

‘마스크걸’ 김경자는 주오남(안재홍)의 엄마다. 그는 아들이 마스크걸 김모미에게 살해당하자 복수에 나선다.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평생을 바쳐 일한 김경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 김모미를 쫓고 또 쫓는다. 말 그대로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갈 기

세다. ‘내가 겪은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하겠다.’ 김경자는 김모미는 물론 김모미의 딸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그의 모성은 선을 넘는다.

엄혜란은 이처럼 폭주하는 김경자를 현란한 개인기로 가지고 놀며 보는 이들의 감탄을 불러일으킨다. ‘더 글로리’의 강현남이 정석에 가까운 엄마 연기였다면, 김경자는 파격과 변칙의 엄마 연기. 걸쭉한 목포 사투리를 구사하며 육두문자를 거리낌 없이 내뱉고, 장총을 쏘대며 아들의 복수를 부르짖는 이 엄마는 정말이지 전에 본 적 없는 엄마이고, 전에 본 적 없는 빌런(villain·악당)이다. 이런 김경자는 ‘마스크걸’의 또 다른 주인공이기도 하다. 물론 김모미의 비중이 가장 큰 건 맞다. 그러나 김모미를 이한별·나나·고현정이 나눠 연기할 때 엄혜란은 김경자를 도맡았다. 배우 출연 분량을 따지면 아마도 엄혜란이 가장 많을 것이다.

“지금까지 못 본 인물이라서 하고 싶었어요. 못 본 빌런이고 못 본 엄마였죠. 여성 캐릭터가 확장되는 느낌이고, 모성애를 다루는 방식도 전형적이지 않아서 끌렸습니다.”

그만큼 매력적이어서 엄혜란은 김경자를 세공하듯 다듬었다. 일단 사투리. 엄혜란은 전라남도 여수 출신이어서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건 어렵지 않았다. 그는 전작들에서 전라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사투리를 써본 경험이 있었다. 다만 그는 김경자가 목포 출신이라는 디테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목포 출신 배우에게 사투리를 따로 배웠다. 액션 연기도 준비했다. 그는 ‘경이로운 소문’ 시리즈를 찍으면서 액션 연기에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마스크걸’에도 적지 않은 액션 장면이 있는 만큼 그는 퍼스널 트레이닝(PT)을 받아야며 체력을 다졌다. 물공포증이 있는 그이지만 김경자를 위해 차에 갇힌 채로 강물에 던져지는 장면도 찍었다. 그는 이 모든 게 “배우로서 나를 성장시켰다”고 했다.

시청자들은 이런 엄혜란의 연기를 아낌없이 지지하고 있다. 오죽하면 일부 시청자는 엄혜란의 연기를 ‘연기 차력’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지금 엄혜란이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고 얘기한다. 다만 그는 “평가하는 내 몫이 아니다”고 말했다. “평가는 보는 분들이 해주실 거예요. 정성껏 준비한 작품 혹은 연기가 시청자와 잘 맞아 떨어지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글썽요. 지금이 제 연기 인생의 정점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가장 행복한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더 글로리’는 말할 것도 없고 ‘마스크걸’ 역시 흥행 면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경이로운 소문2:카운터 펀치’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엄혜란은 “다음 작품이 지금처럼 크게 사랑 받지 못해도 담대하게 의미를 찾아가는 작업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 “저는 행복을 있는 그대로 누리지 못하는 타입이에요. 행복 끝에서 늘 불안과 걱정을 느낍니다. 다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 분명히 잘 안 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너무 결



과에 실망하지 않고 연기의 본질만 생각하며 계속 나아가고 싶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 스트레이 키즈, 日 신곡 존재감...‘유튜브 뮤비 월드와이드’ 1위

현지 첫 EP 수록곡 ‘소셜 패스’

대세 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스키즈)가 일본 신곡 ‘소셜 패스’(Social Path feat. LiSA)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글로벌 존재감을 드러냈다.

3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스트레이 키즈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일본 오리지널 곡 ‘소셜 패스’는 같은 날 오후 기준 일본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정상을 차지했다. 이튿날 오후엔 유튜브 뮤직비디오 트렌딩 월드와이드 1위를 기록했다.

또 신곡 음원은 발매 당일 기준 아이튠즈 월드와이드 송 차트 1위에 올랐다. 지난달 31일 오후 아이튠즈 재팬 송 차트를 비롯해 해외 25개 지역 아이튠즈 송 차트 정상에 랭크됐다.

‘소셜 패스’는 ‘귀멸의 칼날’ 등 현지 인기 TV 애니메이션 주제를 포함해 다수의 히트곡을 보유한 일본 유명 아티스트 리사(LiSA)와 스트레이 키즈가 첫 콜라보레이션 노래다. 스트레이 키즈 내 프로듀싱 팀 쓰리라차(3RACHA) 방찬, 장빈, 한이 작사와 작곡을 맡아 “길을 개척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앞서 리더 방찬은 “제가 있어 특별한 곡이 리사 선배님과 콜라보로 더 특별해졌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가사지만 많은 분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버텨내고 있을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하고자 했다. 이 노래가 여러



분게 많은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소감을 전한 바 있다.

스트레이 키즈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달 16~17일 일본 후쿠오카 페이 페이 돔에서 첫 돔 투어 ‘파이브스타 돔 투어 2023’의 포문을 열었다. K팝 4세대 보이그룹 최초 일본 4대 돔 공연장 임성 기록을 쓰는 이 돔 투어는 사전 응모만 약 250만 건을 넘어섰

다. 멤버들은 전날과 이날 반데런 돔 나고야를 거쳐 9일~10일 교세라 돔 오사카, 10월 28일~29일 도쿄 돔까지 총 일본 4개 도시 8회 규모로 투어를 펼친다.

‘소셜 패스’가 실린 일본 첫 번째 EP ‘소셜 패스 / 슈퍼 불 -재패니즈 버전-’은 오는 6일 발매된다.

## “데뷔 직후 정산 문제 삼는 건 착오” 음레협, 피프티 전속계약 사태 우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가 최근 신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피티피티) 네 멤버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우려를 표했다.

음레협 운동환 회장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연투유TV에서 이번 피프티 피프티 사태와 관련 대중음악산업 구조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전했다.

특히 피프티 피프티가 네 멤버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신청 시 문제 삼았던 80억원 음반·음원 선급금 투자 사례에 대해 “음반·음원 선급금 투자는 매달 발생하는 음반, 음원 수익을 상계 처리하는 구조”라고 짚었다.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된 스타의 경우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신인의 경우 선급금 투자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80억 선급금 투자를 받았다는 것은 어트랙트 전속준 대표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본 것이라는 게 윤 회장의 판단이다. 그는 “이 경우 아티스트에게 고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자

칫 잘못하면 음악산업 전체가 축소되고 위축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처음에는 무조건 적자로 시작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투자와 손해, 이익이 반복되다 보면 흑자가 발생하는 시점이 올 텐데 데뷔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산을 문제 삼는 건 착오”라고 강조했다.

또 윤 회장은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고 활동 지원이 미비했다는 피프티 피프티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표본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불명확하다. 표준계약서에서 한정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법적 다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이 건으로 해외에서의 K팝에 대한 위상과 호의가 꺾일 수도 있다. 대중음악산업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네 멤버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법원이 기각했다. 멤버 측은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멤버들 측은 양측이 맞서고 있는 쟁점에 대해 본안에서의 심리를 위한 본안 소송 또한 제기할 예정이다.

뉴스



방송인 서정희가 남편인 고(故) 서세원과 이혼 과정을 돌아봤다.

서정희는 지난 2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서세원이 이혼을 하며 요구했던 물건 목록에 대해 털어놨다.

## 서정희 “서세원, 나랑 잤던 침대 달라고...사망 이틀 전까지 전화”

MBN ‘속풀이쇼 동치미’ 방송

서정희는 “(서세원이) 나랑 잤던 그 침대를 달라고 했다. 그때 눈물이 ‘핑’ 돌면서 ‘난 이 침대를 보면 눈물이 나 버리고 싶은데 왜 달라고 하지?’ 생각했다. 그때 마음을 두 번째로 접었다. 결혼을 지킨 게 의미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서정희는 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기억하는 서세원의 엘리베이터 폭력 사건도 언급했다. 그녀는 “사건 현장에 경찰이 달려왔고, 접근 금지 가져본 신청 후 병원으로 실려갔다. 질질 끌려오는 과정에서 청바지가 다 찢어졌다. 여자 경찰이 그 모습을 보고 논란의 소지 없이

내가 피해자라고 하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런 수모를 겪어도 서정희는 서세원에게 계속 전화했다. 그의 바뀐 전화번호도 계속 알아내 전화를 했다. “아이들과 관계가 회복됐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엄마인 본인이 아빠와 자녀들 간 관계를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서세원이 사망하기 이틀 전에도 전화를 시도했다고 했다. 다만 통화를 못 했으며 사망했다고 해서 믿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현재는 서세원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다. “지금은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재혼에 대한 생각을 내비쳤다.